Aston ICO 개요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암호화 화폐 공개라는 뜻이다.

ICO는 발행 재단이 기술과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암호화 화폐를 매각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ICO는 기존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비유해서 만든 말로, 암호화 화폐 업계의 IPO라고 불린다. IC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2014년 2,600만달러에서 2015년 1,400만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2016년부터 급속히 불어났다. 금융리서치업체 오토노머스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12억 7,000만달러로 작년 2억 2,000만달러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ICO가 폭증한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 화폐의 가격이 단기간에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ICO는 IPO에 비해 가격 상승이 빠르고 별도의 규제가 없어 자금을 쉽게 수혈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영세기업이 별다른 기술이나 성장성 없이 무분별하게 ICO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IC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행 회사의 신뢰도나 기존 코인들과의 기술적 차별화점. 향후 상용화 가능성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 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온라인 정보를 여러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하여는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누구든 열람과 연구가 가능하다.

Aston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 X 블록체인

기존 블록체인 기술은 '체인'이라는 단어에서 곧바로 연상되듯이 1차원적인 선형의 데이터 블록 연결체이다. 하지만 Aston의 기반 기술은 단순히 상용화된 블록체인 기술의 복사판이나 부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X 블록체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블록체인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X 블록체인 기술은 하나의 블록에 다차원의 서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로 일명 '입체형 블록체인 '이라고도 일컫는다. 이 때문에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상화폐 발행에 지나지 않고 지구촌의 공적 문서관리 시스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X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 써트온에 의해 자체 개발되어 특허출원된 것이며, Aston은 이 블록체인 신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 화폐이기 때문에 혼란한 국제 ICO 시장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Aston은 암호화 화폐의 기본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X 블록체인 기술의 결정체이며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Aston 개요

세계 최초 X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암호화 화폐

발행 주관사 : 주식회사 써트온 (한국 코스닥 상장업체 포스링크의 100% 자회사)

Aston 재단 소재지 : 스위스

ICO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백서 다운로드 포함). https://aston.company/

지원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